

배드민턴 안세영, 천위페이에 역전승...싱가포르오픈 결승행

등록 2026.05.30 16:57:17



[싱가포르=신화/뉴시스] 안세영(1위)이 28일(현지 시간) 싱가포르 칼랑의 싱가포르 체육관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(BWF) 월드 투어 싱가포르 오픈(슈퍼 750)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송슈원(36위·대만)과 경기하고 있다. 안세영이 35분 만에 2-0(21-8 21-6)으로 승리하고 8강에 올랐다. 2026.05.28.

[서울=뉴시스] 김진엽 기자 = 한국 배드민턴 '간판' 안세영(삼성생명)이 천위페이(중국)를 누르고 싱가포르오픈 결승전에 진출했다.

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30일(한국 시간) 싱가포르에서 열린 천위페이(세계랭킹 4위)와의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(BWF) 월드투어 슈퍼 750 싱가포르오픈 여자 단식 4강에서 2-1(20-22 21-12 21-15) 역전승을 기록했다.

천위페이는 천적으로 불릴 정도로 안세영을 괴롭혔지만, 이날 승자는 안세영이었다.

상대 전적에서도 16승14패로 우위를 점했으며,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도 5승을 기록하게 됐다.

1게임은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했다.

안세영은 10-5로 앞섰지만, 내리 5실점을 허용했다.

듀스 승부 끝에 20-22로 첫 게임을 내줬다.

다행히 2게임부터 분위기를 뒤집었다.

21-12로 2게임을 따내면서 승부의 균형을 잡았고, 3게임까지 기세를 이어 역전승을 거뒀다.

안세영의 결승 상대는 세계랭킹 3위 야마구치 아카네(일본)다.

야마구치는 앞서 이날 오전 세계랭킹 2위 왕즈이(중국)를 2-1(21-13 17-21 21-15)로 제압한 바 있다.

안세영은 야마구치와의 상대전적에서 17승15패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